

전주대 김시열 교수, 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선출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2024년도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5년 1월 설립된 학술단체로, 소프트웨어 프로페션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해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감정(expert testimony)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시열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은성 기자



한우협회 김제시지부,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 (사)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죄승훈)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달리며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는 △지평선 한우불고기 시식 행사(2011년부터 매년 시행), △한우나눔행사(2012년부터 매년 시행), △청소년 한우불고기 맛체험(2012년부터 매년 시행), △한우국밥행사(14~18년 5년 시행)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죄승훈 지부장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9월 한우 불고기 기탁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소외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전해 준 (사)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권혜정 남원 향교동장, 100세 어르신 축하물품 전달

남원시 향교동 권혜정 동장은 지난 7일, 1일 1기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동장이 광석마을 100세 어르신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장수 축하물품(불고기과 족육기)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의 일환으로 이불, 성인용 기저귀, 안마기, 족육기, 토퍼, 방찌유기 세트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16종의 생활물품으로 어르신이 직접 원하는 물품을 고를 수 있다.

권 동장은 이날 물품을 전달하면서 난방기 작동 여부와 전기장판 안전 사용법, 족육기 사용법 등을 어르신께 안내하며 동절기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수 있도록 함께 보살펴 드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무주80동문화’ 장학금 250만원 기탁

1980년 무주군에서 태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무주80동문화’ 회원들이 11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2백50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80동문화’ 손병규 회장은 “고향 무주에 항상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르신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매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오고 있다”며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대학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공부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80동문화’는 2012년부터 13년째 활동 중인 친목 단체로 32명의 회원들이 매년 지역과 이웃을 위한 일에도 앞장 서며 지역사회에의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장학금을 비롯한 이웃돕기 등에 기부한 금액이 1천5백만 원에 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소년 ‘문화 감성 행복 프로젝트’

장수교육지원청, 제95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추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제95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장수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장수군 모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감성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 감성 행복 프로젝트’는 장수읍과 거리가 멀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학생들을 우선 지원으로 장수교육지원청 청의예술미래공간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달빛이 간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계북초등학교와 계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역사 문화 감성 함양을 위한 군산 역사문화 탐방과 28일에는 천천히 디원케플봄센터에서 천천초등학교, 천천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캐리터링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일에 열린 제21회 장수골청소년문화제에는 ‘내가 오락왕’ 부스와 푸드트럭 3대를 운영해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지원청은 11월 중 신서면, 번암면 지역 청소년들을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으로 초대해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3 수험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생활 밀착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내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에듀테크 한마당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이 주최한 ‘찾아가는 에듀테크 한마당’ 행사가 11일 무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AI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에듀테크 체험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체험 미당으로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에듀테크 한마당’은 총 8개의 부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AI 로봇 체험, 메타버스 체험, 드론 플라잉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솔루션 패밀리 콘텐츠를 만드는 머거리 부스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신나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교원의 이동교화조들이 행사를 찾아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강 교육장은 “이번 에듀테크 한마당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에듀테크 체험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무주 관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할양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교육지원청은 11월 20일에 설천초등학교, 11월 21일에 무주중앙초등학교, 11월 22일에는 안성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에듀테크 한마당 행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진로 연계 학습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

남원시는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관내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설·한파 등이 예상됨에 따라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거리 노숙인 중에는 동절기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알코올 중독 등 위험군이 많아 동사 사고 발생에 시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순찰 강화, 응급 구호 조치, 상시 치료 체계 구축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협력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시 주민복지과에서는 291 그룹 거리 순찰·상단반을 별도 구성, 노숙안을 위한 긴급구호, 응급 잠자리, 시설 입소 귀향 대책 등을 통해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노숙인 등 취약 가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빙글과 신고가 무엇보다 주요하다며,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5)나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이 꼭 필요한 시기이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이불 빨래 봉사활동 진행

남원시 대강면은 지난 10일, 적십자기온누리기자봉사회(회장 김희만) 20명과 평촌마을에서 취약계층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시설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빙글을 세탁해 취약계층 30가구의 이불 빨래를 통해 개인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희만 회장은 “물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손과 빙글을 대신하여 이불 빨래를 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동참해 주어 너무나 감사하며, 특히 어린 자녀들끼리 자연스럽게 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봉사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강면 이아영 맞춤형복지팀장은 “뽀송뽀송하고 향기로운 이불을 안고 쓰이려는 어르신들을 보니 덤덤하고 흐뭇해진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에 등의하여 이웃사랑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빠덕애, 지평선축제 컴페티션 참여 순수익금 1000만원 환원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사연이 전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1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6회 김제 지평선 축제에는 꼬보자고 컴페티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제에서 운영되는 9개의 식당을 먹거리부스에 포함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된 9개 식당 중 ‘아빠덕애(대표 이나현)’는 지평선축제에 참여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1,000만원을 이달 중 어려운 이웃에 환원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니언 대표는 “지평선 축제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을 받은 만큼 벌어들인 수익금은 김제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면서 “부모님이 김제에서 받은 사랑은 이웃에게 전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그 의견



전주기전대, 도내 이주여성 직업박람회 성료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9일 체육관 및 오르겔홀에서 2024 도내 이주여성 대상 직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의 이주여성 가족이 참석,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경제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 체험 부스는 △음악실기교사 △동물훈련사 △유튜버 △헤어메이크업디자이너 △필리레스토리자 △제빵자 △조리사 △CAD디자이너 △임상병리사 △재활전문직업치료사 △유아교사 △파부미용사 △패션디자이너 등 총 13개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주여성은 “이번 경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면서 “궁금한 점을 담당 교수님이 바로 피드백 해주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특히 전시회장에서 전시회장을 만나서 좋았던 점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기전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산학협력 협약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11일 전북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 유아교육 실무 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둘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주기전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 우선 채용 노력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정기적인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연합회 주요 행사에 대한 전주기전대학의 지원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 홍보 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유아교육 혁신 모델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이다.

전북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원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유아교육 발전과 우수한 인재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진장축협 · 무주한우협회, 장학금 300만 원 기탁

무주군은 11일 무주한우협회와 무진장축협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공동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한우 식당(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한우 판매와 상차립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한우협회 김명섭 회장은 “무주반딧불축제가 진행되는 내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땀 흘린 결실을 장학금으로 내놓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축산업도 불황이라 어려움이 많은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들 간에도 의기투합의 기회로 삼기 위해 무주반딧불축제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그 수익금을 다시 무주군 인재를 키우는 일에 나누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진장축협은 지난해 5월에는 고양시립기부금으로도 340만 원을 기부했으며, 무주한우협회(회원 110명)는 올해 추석 무주군에 320만 원 상당의 불고기용 한우 103kg을 기증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